

POBA LIFE

POBA MAGAZINE VOL.18



만나고 싶었습니다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



아름다운 동행
양천중앙도서관
김장원 관장



테마
#웃음



제철 레시피
바다의 보약을 먹다, 흥함



POBA 인베스트먼트
국내외 투자자산

POBA NEWS

POBA LIFE

POBA MAGAZINE VOL. 18

CONTENTS

동행

- 03 만나고 싶었습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만나요!
- 08 찾아라 로컬푸드 초겨울 꼬박꼬박 찾게 되는 꼬막 정식
- 12 아름다운 동행 지역 주민과 동행하는 도서관을 위하여
- 16 취향의 발견 변치 않는 아름다움, 페이퍼 플라워
- 19 머니 트렌드 고물가 시대, 생활비 줄이는 꿀팁
- 22 제철 레시피 바다의 보약을 먹다, 홍합
- 26 라이프스타일 올해가 가기 전에

테마 #웃음

- 30 반짝반짝 인문학 웃으면 복이 와요
- 33 스페셜 라이프 “밝고 유연한 공무원이 되려 합니다”
- 37 공감 정보 한국인의 웃음을 찾아서
- 40 센스 아이템 미술의 미소

POBA 광장

- 47 POBA 인베스트먼트 실패하지 않는 투자, 인구 수요와 주변 인프라를 통해 보다 안정적 수익을 도모한다
- 49 POBA 뉴스 POBA 뉴스 Vol. 18
- 55 공제제도 알아가기 한아름목돈예탁의 모든 것
- 58 부가울 인상 안내 한아름목돈예탁급여·분할지급퇴직급여 부가울 인상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만나요!

언제 봐도 아름다운 자연 생태와 잘 조성된 정원, 흐드러지게 핀 꽃과 수목.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이 지금처럼 국민의 휴식처이자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해 온
숨은 공신이 있다.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왼쪽부터)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 윤형근 주무관, 안송이 주무관, 김정숙 팀장, 진유미 주무관, 순천만관리센터 장홍상 소장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저희 손에 맡겨주세요

이쯤 되면 말 그대로 최고의 근무 환경이다. 순천만국가정원 서문으로 입장해 아름답디나무들과 다채로운 꽃, 핑크 물리 사이를 지나니 순천만국제습지센터가 나온다. 여기가 바로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조성되었어요. 2014년 4월 20일에 개장했고 2015년 9월 5일에 국가 정원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는 그 이후, 2016년에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약 28만 평 부지에 61개소의 주요 시설을 29명 안팎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팀, 조경팀, 화훼팀 직원들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로 파견되어 근무 중입니다.” 김정숙 팀장의 설명이다.



현재 국가정원운영과는 크게 정원행정팀, 운영수익팀, 박람회지원팀, 스카이크루브팀으로 나누어 일하고 있다. 정원행정팀은 기획, 홍보, 행사 등을 담당하고 운영수익팀은 국가정원 내부 운영, 매표소나 기념품점, 관람차, 식음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박람회 지원팀은 내년 열릴 국제정원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팀으로 현재 조직위와 긴밀하게 업무 협력 중이다. 스카이크루브팀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을 연결해 주는 스카이크루브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7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꼼꼼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기에 만들어진 팀이다.

인터뷰에 동석한 순천만관리센터의 장홍상 소장은 국가정원운영과를 필두로 정원산업과와 순천만보전과를 총괄하는 수장이다. 그는 “이 모든 과들은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의 모든 분야를 활성화하고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이라는 말로 순천시에서 순천만 국가정원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부연 설명했다.



정원 안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자연과 생태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도심이 순천만 방향으로 더 이상 확장될 수 없도록 ‘정원’이라는 확실한 명분을 가진 ‘친환경 벽’을 구축해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 것이 그 시작점이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 시민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공존할 수 없는 생태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보존하고 자연과 인간, 도시와 생태가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루며 상생하는지 그 가능성을 널리 알린 거지요. 이후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2014년),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2015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이 지정되면서 정원 사업은 순천의 백 년 공간을 채우는 미래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장홍상 소장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 김정숙 팀장

김정숙 팀장은 ‘국가정원 1호’라는 타이틀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 상징성으로 도시 브랜드와 생태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순천시의 존재감을 전국적으로 각인시키고 도시 브랜딩의 모범 사례로 꼽히면서 유럽 등 선진국보다 50년~150년이나 늦게 시작한 대한민국의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성된 순천만국가정원은 개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순천 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힐링과 즐거움의 공간이 되었다. 생태 교육적인 측면은 물론 다양한 축제들과 볼거리들로 사시사철 누가 와도 즐길 수 있는 전천후 장소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순천만국가정원에는 동물원이 있다는 얘기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흥학, 백고니, 청와대에서 온 풍산개 아픔이와 가을이, 물범, 미어캣, 프레리독, 사막여우, 그리고 세이셀에서 기증받은 육지 거북이까지. 서문 쪽에 있는 동물원은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동물이 있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해요. 순천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주 오는 필수 코스이니 많이 와주세요.”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 진유미 주무관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 안송이 주무관

진유미 주무관의 자랑을 안송이 주무관이 이어받는다. “갈대축제나 별빛축제는 그동안 관광객들이 순천만국가정원을 많이 찾아주셨던 주요 요인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국가정원은 놀이 외에도 환경 보호와 생태 교육적인 측면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텀블러를 기부하거나 대여할 수 있고 ‘NO 플라스틱 순천만국가정원’ 제도를 통해 생태 환경을 보전하고 있어요. 국가정원 내 표지판이나 벤치 등을 모두 친환경 소재로 바꾸었고 또 NO 플라스틱 실천 교육, 친환경 비누 만들기 체험 등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텀블러 세척기를 늘리는 등 생태 문화 관광지로서 ‘2050 탄소중립 실천’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 윤희근 주무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현재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는 내년에 개최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목전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첫 번째 국제정원박람회가 국가정원으로 생태 축을 만들어 세상에 널리 알렸다면 10년 만에 열리는 두 번째 국제정원박람회는 완전히 다른 색깔로 그 문을 활짝 열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개막 예정인 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제에 걸맞게 박람회의 권역을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도심까지 확장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저류지 정원과 그린웨이 조성은 박람회 핵심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10년 전 2013 국제정원박람회와의 차별점이라면 이번에는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조성하는 ‘정원 도시 1호’라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집니다. 내년 박람회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정원 문화가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윤희근 주무관이 각 오를 다진 듯 다부진 의지를 보여준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동천과 저류지를 하나의 정원으로 묶을 것이다. 국가정원과 도시를 연결하는 동천 뱃길 정원 체험선은 색다른 이동 수단이자 고품격 화훼를 감상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여기에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걷는 밤의 정원, 매일 밤 국가정원에서 펼쳐지는 빛의 향연, 순천만 해안을 맨발로 걷는 어싱길(4.5km), 1박 2일 가든 스테이 운영 등 2023 국제정원박람회는 봄, 여름, 가을 내내 정원의 모든 것을 만끽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박람회 준비를 위한 휴장 기간에 들어간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순천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도시로서 수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며 ‘정원 도시’라는 새로운 정원 역사를 열 것이다.



“국제정원박람회는 현재 10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박람회가 정원을 도심까지 확장하고, 그 후에는 더 나은 생태와 정원 도시 순천의 정체성을 보다 공고히 다지게 될 것입니다. 힐링과 여유,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공간에서 미래 정원의 모습과 트렌드까지 미리 만나보십시오. 최고의 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순천만관리센터 장홍상 소장과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 사람들. 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 정원의 미래가 비 오는 날 죽순처럼 ‘쑥’ 자라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 이경희 사진 배주영

초겨울 꼬박꼬박 찾게 되는 꼬막 정식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떠오르는 식재료가 하나 있다. 살과 맛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꼬막. 순천과 벌교의 특산품으로 대표적인 남도 음식 중 하나로 꼽히는 꼬막을 찾아 순천을 방문해 보았다.



가을이 깊어지면 전국의 식도락가들을 순천으로 불러들이는 식재료가 있다. 바로 꼬막이다. 한여름에 산란을 시작한 꼬막은 이맘때쯤 몸집을 불러 겨울을 날 준비를 한다. 11월~3월에 잡은 꼬막은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깊은 맛이 나 최고로 쳐준다. 꼬막은 돌조개과에 속하는 조개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하는데 연한 진흙질의 개펄에서 생활하며 전라남도 고흥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로 이어지는 여자만 연안이 우리나라 꼬막의 최대 생산지다. 순천과 벌교의 꼬막에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순천의 명물, 꼬막

우리나라에서 꼬막을 식재료로 쓴 역사는 길다. 정약전이 저술한 『자산어보』를 보면 꼬막은 살이 노랗고 맛이 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우리나라 각 지역의 지리, 풍속 등을 기록한 지리서 『동국여지승람』에는 꼬막을 전라도의 장흥도·해남현·보성군·흥양현의 토산물로 기록하고 있으니 그 맛의 역사는 실로 길다고 말할 수 있다.

꼬막은 맛도 좋지만 특히 다양한 효능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백질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덕분에 꼬막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은 물론 골격 발달에도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꼬막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타우린과 베타인 성분은 간 기능 개선에도 좋은 효과가 있어 꼬막은 술 안주로도 인기가 좋고 숙취로 고생할 때도 꼭 찾는 음식이 되었다. 꼬막에는 면역력 증진에 큰 효과를 주는 핵산도 듬뿍 들어있다.

필수 섭취! 초겨울 꼬막

예로부터 꼬막은 어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으로 소문이 났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모두 즐겨 먹는 음식이 됐다. 특히 전남 순천에 가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다. 해마다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수십만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순천시의 꼬막 식당들은 대부분 여자만 연안에서 공수해 오는 신선한 꼬막을 재료로 쓰기 때문에 쫄깃하고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다.



여기에 더해 꼬막 정식을 시키면 남도밥상 특유의 ‘상다리 부러지는’ 푸짐한 반찬들이 함께 나와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든다. 분명 목표는 꼬막이었음에도 갈팡질팡 젓가락을 헤매게 만드는 위력을 발휘하니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것이 일견 당연해 보인다.

순천시 식당들이 내놓는 꼬막 정식에는 기본적으로 꼬막 회무침, 삶은 꼬막 등 다양한 꼬막 요리들이 나온다. 식당들은 꼬막을 이용한 저마다의 독특한 레시피도 갖고 있는데 이를 찾아 맛보는 즐거움도 크다. 꼬막 정식에는 새꼬막과 피꼬막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나온다. 새꼬막은 쫄깃함과 은은한 조개 향이 일품이고, 피꼬막은 큼직해 식감이 좋다.

깊어가는 순천만 습지와 가을의 순천만국가정원을 둘러보고 싶다면, 또 늦가을~초겨울 꼬막의 별미를 맛보고 싶다면 이 계절, 필히 순천을 찾아 보자.

순천시 꼬막 정식 맛집을 소개합니다

신선한 꼬막에 정성이 듬뿍 밥꽃이야기 들마루

순천만 습지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밥꽃이야기 들마루는 순천에서 꼭 한번 들러야 하는 맛집이다. 12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식당에서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당연히 꼬막 정식이다. 남도의 밥상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맛과 멋을 자랑하지만 꼬막 정식은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준다. 이곳 꼬막 정식의 특징은 주재료인 꼬막을 활용해 아주 다양한 요리들을 선보인다는 것이다. 김에 싸 먹는 간장 꼬막밥, 꼬막 탕수육, 꼬막 보쌈, 삶은 꼬막, 꼬막회 무침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꼬막 요리들이 나온다.



같이 나오는 반찬들도 반찬이라고 부르기 미안할 정도로 제대롭다. 칼칼한 국물이 시원한 조기매운탕, 코다리가 통째로 올라와 있는 코다리조림, 순천만 미나리와 한돈을 듬뿍 다져 만든 떡갈비까지 나오니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만족할 만한 상차림이다. 1인용 압력솥에 딱끈하게 지어져 나오는 잡곡밥 역시 없던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데 마지막에 물을 부어 먹는 누룽지는 아무리 부른 배도 꺼뜨리는 마법을 부린다. “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은 하다못해 소스까지 전부 주방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여자만에서 배송 받는 싱싱한 꼬막과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오는 신선한 식재료는 저희 집의 자랑이에요!”라는 주인의 자부심이 결코 빈말이 아닌 이유다.



주소 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496

전화 0507-1338-5233

영업시간 11시~20시 30분

(수요일 휴무, 브레이크타임 있음)

메뉴 꼬막 정식 19,000원, 꼬막삼합정식 29,000원

집밥 같은 푸짐한 꼬막 정식 만복정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바로 맞은 편의 만복정은 말 그대로 만 가지 복을 부르는 맛을 자랑한다. 환하고 청결한 내부가 주인장의 깔끔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믿음직스러운데 여기에 친절까지 더해지니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이미 입맛이 살아난다. 꼬막 정식을 주문하면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거한 상차림이 나온다.



만복정 꼬막 정식의 특징은 꼬막 외에도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아낌없이 내놓는다는 것이다. 참기름을 바른 전복구이, 낙지를 통째로 젓가락에 돌돌 감은 뒤 고추장 양념을 발라 구워낸 전라도 음식 낙지호롱, 홍어삼합, 박대구이, 밥도둑인 간장게장과 양념게장까지. 이 반찬(?)들만으로도 음식 가격을 훌쩍 뛰어넘은 듯한데 여기에 메인인 꼬막 요리까지 더해지니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풍성함이다. 거대한 대접에 담겨 나오는 뜨끈한 미역국과 노릇노릇 부쳐진 전, 갓 튀겨낸 고구마튀김 역시 입맛을 돋운다. 만복정의 자부심은 집에서 차려 먹는 밥상을 손님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요리한다는 것이다. 사장이 매일 여자만에 가서 구입해 오는 꼬막 요리와 반찬들은 최소한의 조미료만을 써서 조리하고, 다양한 나물 반찬까지 전부 주방에서 조물조물 데치고 양념해 내놓으니 먹으면 속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소 전남 순천시 오천2길 18-2 1층
전화 0507-1354-5427
영업시간 11시~20시(일요일 휴무, 브레이크타임 있음)
메뉴 꼬막 정식 22,000원, 꼬막 비빔밥 11,000원

글 이경희 사진 배주영

지역 주민과 동행하는 도서관을 위하여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는 장소를 넘어 마을과 함께 꿈꾸고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있다.

양천중앙도서관 김장원 관장은 지역 사회와 이웃과 환경을 배려한다면

도서관은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Q. 관장님 소개, 그리고 도서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양천중앙도서관 관장이자 양천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장으로서 문화가 특징인과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활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양천도서관은 2021년 2월 개관해 약 8만 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는 양천구 대표 도서관인데요. 책과 어우러지는 열린 공동체로 '동행'과 '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마을과 함께 꿈꾸고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지난해 개관 후 약 1년 정도 지났는데요. 도서관을 이용해온 양천구민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양천중앙도서관 개관 전까지만 해도 양천구에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천중앙도서관이 개관한 후에 공간이 여유로워지고 자료의 양이 늘어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양천구뿐만 아니라 멀리서 부천 시민까지 이용하는 도서관이 되었죠. 항상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과 도서관 행사를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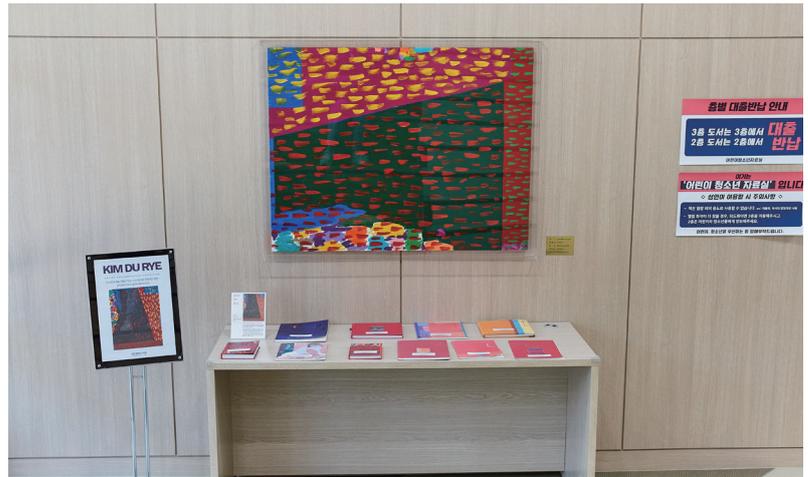


Q. 양천중앙도서관의 도서 구매 방식도 조금은 독특하다고 하던데요?

양천구는 지역 서점 살리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지역 내 서점 16곳으로 이루어진 양천서점협동조합을 통해 구매 도서의 상당 부분을 구매하고, 작은 책방과 독립 출판을 통해 주민의 신성 도서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 출판과 작은 책방에 대하여 도서관 내 상설 북 큐레이션을 운영하며 연 2회 시행하는 플라마켓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축제인 북 페스티벌 행사에는 각각의 책방, 독립 출판, 지역 공방용 부스를 제공해 고유의 특색 있는 행사와 홍보, 전시, 판매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요. 동네 서점과의 연계 사업을 통해 릴레이 북 콘서트, 나만의 책 만들기 등 다채로운 독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그뿐만 아니라 양천중앙도서관은 특수한 환경의 이용자들에게도 열려 있는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서관이야말로 물리적인 장벽을 허물어 누구에게나 지식 정보에 접근하는 데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천중앙도서관은 누구나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으로 지어진 열린 도서관입니다. 휠체어 승강기를 설치하고, 독서 확대기, 음성 독서기, 소리 증폭 청취 기기, 화면 낭독 프로그램 등의 독서 보조 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자가 대출 반납기, 높낮이 조절 책상 등을 설치하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특수 환경의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큰글자도서’도 약 800종 구비하고 있는데요. 큰글자도서는 시각 장애가 있거나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어르신 등 작은 글자를 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외에도 큰 글자를 선호하는 이용자들이 많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Q. 양천중앙도서관만의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과 편의 시설도 소개해 주세요

도서관과 예술가들이 함께 공간을 재해석하고 변화시키는 ‘도서관과 예술로 놀자’ 프로그램은 도서관이 책을 읽거나 공부만 하는 곳이라는 도서관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기타 연주를 듣고 연극을 보는 등 주민들이 예술을 공유하고 즐기는 장소로서 도서관의 이미지를 구축해 주었습니다.

늘 곁에 두고 한 번씩 들춰보고 싶은 잡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2022년부터 새롭게 진행된 ‘월간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작가와 전문가들을 도서관에서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게 되었죠.

‘도토리마켓’은 ‘도서관에서 토요일에 우리끼리 하는 플라마켓’을 줄인 이름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플라마켓을 운영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도토리마켓에서는 각 지역 내 서점, 제로웨이스트 상점, 코바늘 뜨개질 상점 등의 깜짝 상점과 캘리그래피, 비누 만들기, 걱정 인형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도서관을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간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Q. 최근 자원 순환 실천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인식 개선을 위한 공간인 카페 ‘지구’를 조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카페 지구’는 양천구청 교육지원과와 녹색환경과, 현대엔지니어링,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인 ‘희망일곱터’가 함께 민관 협력으로 조성한 카페입니다. 고통받는 지구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환경 관련 도서, 커피박을 통한 공예품, 전기 생산 페달 등을 비치하고 있는데요. 운영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맡김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그분들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도서관과 카페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환경 보호와 장애인과의 ‘동행’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Q. 양천중앙도서관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헌정보학자 시알리 라맘리타 랑가나단 박사는 ‘도서관학 5법칙’에서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라고 말했습니다. 도서관을 그 자리에 멈춰있는 한정된 공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민들, 다양한 예술 문화, 시대의 흐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소통하고 변화하는 유기체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가 외면하는 도서관은 단지 육중한 건물에 불과할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 사서들이 더욱 고민하고 연구해서 도서관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 강나은 사진 배주영

변치 않는 아름다움, 페이퍼 플라워

마치 살아있는 꽃 같다. 생화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워 보이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페이퍼 플라워.
재료만 잘 준비하면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페이퍼 플라워의 세계를 소개한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관리해도 며칠이면 시들어버리는 생화와 달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페이퍼 플라워는 그 존재 자체가 매력적이다. 질감에 맞는 습자지, 주름지, 색지 등을 선택해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섬세하게 빚어 완성할 수 있는 ‘종이꽃’ 페이퍼 플라워는 생화의 매력을 그대로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포인트만 살려 생화와는 다른 매력으로 피어난다. 어린 시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들었던 종이 카네이션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페이퍼 플라워의 향기에 젖어 보자.



공예의 한 분야로 당당히 이름을 알리다

세상이 모두 얼어붙은 추운 계절도 봄으로 만들고 싶다면? 집 안 가득 꽃을 피워보는 건 어떨까. 생화를 모티브로 하지만 만드는 사람의 취향이나 상상력에 따라 다양하게 변신하는 페이퍼 플라워. 어떤 꽃은 진짜보다 훨씬 큰 형태의 자이언트 플라워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꽃은 실제보다 훨씬 더 다양한 컬러를 섞어 완성할 수도 있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생화를 실제처럼 구현해 내거나 상상의 꽃을 입체적으로 제작하는 분야'로 설명되는 페이퍼 플라워는 건축가와 큐레이터로 활동하던 티파니 터너(Tiffanie Turner)가 페이퍼 플라워 작품을 통해 젤러 바흐 패밀리 재단의 상을 받으면서 공예의 한 분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적인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페이퍼 아티스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꼭 작가가 아니라도 공방이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간단한 강의를 통해 기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으므로 취미로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쓰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다

페이퍼 플라워도 그때그때 트렌드와 쓰임이 있다. 포토존을 위해 만드는 자이언트 플라워, 인테리어 공간에 맞춰 만드는 모노 톤의 페이퍼 플라워 등등 활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공간에 따라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다는 것도 페이퍼 플라워의 장점이다. 최근에는 실제로 기르던 꽃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그 모양과 똑같이 만든 후 액자로 제작하기도 하고, 꽃가루 날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브라이덜 샤워나 베이비 샤워의 화관을 만들 때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패션 잡지 속 화보에 소품으로도 쓰이며 뷰티 브랜드의 론칭 파티에 등장하기도 한다. 페이퍼 플라워의 쓰임은 무궁무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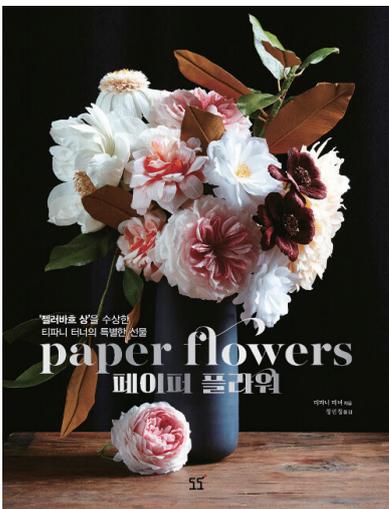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되다

외국에서는 이미 공예의 한 장르가 되었지만 페이퍼 플라워는 여전히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분야다. 초보자라면 페이퍼 플라워라는 이름 그대로 종이와 가위, 풀 정도만 준비해서 직접 만들기를 시작해 보자. 최근에는 페이퍼 플라워 전문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종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직접 염색을 하기도 하고, 조화에 활용되는 줄기 등을 함께 활용하기도 한다. 그보다 더 디테일한 지식을 쌓고 싶어서 꽃이나 식물에 대한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작가들도 있다. 하지만 이제 막 취미로 시작하는 단계라면 기본 재료만으로도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책을 보며 만들어봐요, 페이퍼 플라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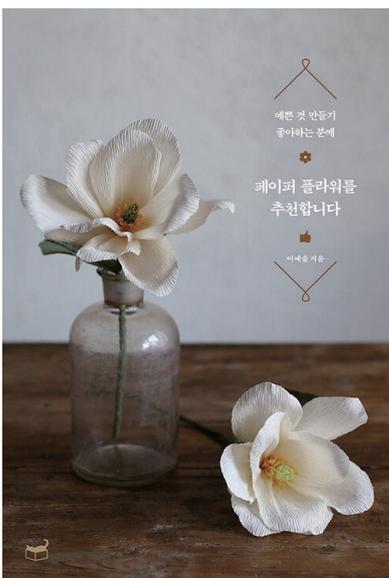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면 페이퍼 플라워 DIY 책으로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다. 초보자부터 작가의 작품까지, 페이퍼 플라워를 위한 도서들.



<페이퍼 플라워 - 젤러바흐 상을 수상한 티파니 터너의 특별한 선물>

페이퍼 플라워를 공예의 하나로 발전시킨 티파니 터너의 저서. 완전 초보자가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작품부터 완성에 며칠이 걸리는 작품까지 다양한 페이퍼 플라워가 수록되어 있다. 만들기 기본 설명은 물론 만드는 방법과 도안, 그리고 완성된 페이퍼 플라워를 활용한 액세서리 만들기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저자 | 티파니 터너
출판사 | 도도



<페이퍼 플라워를 추천합니다 - 예쁜 것 만들기 좋아하는 분께>

심플한 아이디어로 종이꽃 바람을 일으킨 이예솔 작가의 책. 10~20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작품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 소개된 모든 작품의 실물 도안이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저자 | 이예솔
출판사 | 휴머니스트

고물가 시대, 생활비 줄이는 꿀팁

고금리, 고회율, 고물가 시대의 재테크 PART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끝도 없이 오르고 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야흐로 기록적인 고물가 시대다. 언론에서는 연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의 거시 경제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임금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높아져 버린 장바구니 물가가 더 몸으로 와닿는다. 마트에서 먹거리를 대강 고르면 10만 원은 우습다. 4인 가족 기준 일주일 치 먹을 재료들을 사면 20만 원 정도는 지출해야 반찬 걱정을 안 하는 수준이다. 장바구니 물가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이미 인플레이션은 우리 삶 속에서 체감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는 자금 경색을 풀기 위해 돈을 엄청나게 풀어 양적 완화를 했다. 그 대가를 치르듯 2022년에는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여전히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우리나라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높은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 가게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생활비 절감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1 가게부 쓰고 리뷰하기

뽀하디뽀한 가게부 쓰기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자기 가게의 평균 수입금액과 평균 고정지출금액을 답해보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답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내가 고정적으로 얼마를 벌고 있으며, 고정적으로 써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으로 치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청산 기업)쯤에 해당한다. 지금 당장 가게부를 작성해보자. 수기 가게부든, 엑셀 가게부든, 앱 가게부든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시작해보자.



필자의 경우에는 카드 사용 내역이 바로바로 날아오는 앱 가계부를 사용 중이다.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고정비는 처음 설정할 때 한꺼번에 날짜와 금액을 설정해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해둔다. 나머지 변동지출(생활비)의 경우에는 썼을 때마다 카드 알림과 함께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잊어버릴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작성한 가계부에 대해 한 달에 한 번 가족 전부가 모여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 고정비는 늘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번 리뷰를 하진 않지만, 변동비용은 꼭 다시 살펴보는 편이다. 생활비 항목 중 지나치게 많이 상승한 항목이나 외식비 증가 등을 검토한 뒤 반성할 점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 앱 가계부의 경우 매달 지출 카테고리별 한도도 설정할 수 있어 한도가 초과되면 알람이 오게 할 수도 있다.

이 특별한 알람은 ‘오늘 저녁을 배달로 시켜 먹을까?’라는 마음을 슬그머니 가라앉게 하는 데 제격이다. 가계부를 매달 쓰고 리뷰를 하는 집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평균 수입과 반드시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바로 대답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수입에서 고정비용을 뺀 나머지가 곧 변동비용이기 때문에 변동비용을 얼마큼 지출하느냐 하는 계산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적금이나 연금 저축액도 모조리 고정 지출(저축 금액)에 포함하고 있어 변동 지출을 내가 목표하는 금액만큼만 남겨둔다.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더 많이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고 알뜰하게 생활하게 된다.



#2 통신비와 OTT 구독료 줄이기

우리 집의 통신 요금은 성인 직장인 2명 합쳐 4만 원대다. 필자는 알뜰요금제를 이용하고 있고 남편은 3년 이상 단말기 이용으로 요금 할인 25%를 추가로 받고 있다. 그럴싸한 통신사 포인트 할인을 포기하고 알뜰 요금제를 이용한다면 같은 요금제를 쓰더라도 월에 2만~3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신상’ 휴대폰을 사용하는 대신 2년 이상 사용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통신사마다 25% 정도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요금 할인은 자신의 약정 기간이 끝나는 대로 신청해야 반영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약정 기간을 확인하여 고객센터 등으로 전화를 걸어 적용해야 한다. 몇 달 전 우리 집은 드디어 대부분의 OTT 구독을 끊었다. 자주 쓰는 쿠팡 로켓 비용도 끊고 그때그때 근처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쿠팡 로켓배송은 매우 편리하지만, 돈을 헤프게 쓰게 한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문 앞으로 다음 날 가져다주기 때문에(심지어 다음 날 새벽에 가져다주기도 한다) 과소비를 유발한다. 따라서 조금 몸을 움직여야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쿠팡 로켓 가입비를 해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왓챠 등 가입만 해두고 자주 보지는 않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해지했다. 한 건씩 보면 1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비용이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4만~5만 원 정도로 커진다. 한 달 4만~5만 원은 1년이면 무려 60만 원에 해당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기 때문에 가랑비가 내릴 때는 처마 밑으로 피해야 한다. 고물가 시대에는 푼돈도 소중한 자원이다.



#3 세테크가 곧 재테크

마지막 꿀팁은 바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챙기는 것이다. 고물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한 푼이 아쉽다. 매년 국가에 내는 세금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투자를 잘 해놓으면 최대 1,115,000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및 IRP상품이 있다. 연간 1백만 원이 넘는 돈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다. 또 연금으로 받아야 낮은 세율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노후 대비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신청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적용하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매달 원리금을 갚는 경우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15년 이상 상환, 기준 시가 5억 등 특정 연도에 맞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출받은 은행에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월세 거주 중이라면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 소득공제 역시 특정한 요건이 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세대주, 연 7천만 원 소득 이하의 직장인,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공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세금 공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모르면 손해다.

우리는 2020년부터 전쟁과 역병, 금리 상승까지 모든 악조건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명심해야 한다. 인류는 어떤 위기가 와도 늘 답을 찾았고 다른 국면의 경제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고물가 시대를 부르짖고 있는 지금 이 상황도 지나고 보면 큰 흐름에서는 버틸 만한 시대였다고 평가받을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보면 늘 버티는 사람이 승자였다.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바다의 보약을 먹다, 홍합

포장마차에서 내주던 뽀얀 홍합탕 한 그릇이 그리워지는 계절. 쫄깃하고 부드러운 홍합 요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요리가 아닐까. 오늘은 색다르게 즐겨보는 홍합 파스타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식재료인 홍합. ‘붉은 조개’를 뜻하는 홍합은 조개 중에서 짠맛이 덜하다고 해서 ‘담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때 포장마차의 공짜 안주로 유명했던 홍합탕은 의외로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홍합에 포함된 타우린 성분은 숙취의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잘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상된 간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공짜라고 우습게 볼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바다의 보약, 바다의 달걀

홍합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타우린은 숙취 제거는 물론 피로 회복, 기력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홍합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와 E도 많이 들어 있어 피부도 건강하게 지켜 준다고 한다. 칼슘, 철분, 엽산도 풍부해 여성들의 골다공증이나 빈혈을 예방한다고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홍합을 먹을 때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홍합은 4월부터 9월까지 산란을 하면서 ‘삭시토신’이라는 독소를 배출한다. 이 독소는 마비, 언어장애, 입 마름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홍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날씨가 차가운 11월부터 2월까지가 홍합의 제철이다.

다른 어떤 재료보다 신선도가 중요한 홍합은 껍질에서 윤기가 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의 것, 그리고 껍질이 최대한 손상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한다. 신선한 홍합일수록 살이 통통하고 윤기가 나며 요리를 한 후에도 비린 맛이 나지 않는다. 조리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맛이 난다면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구입한 홍합은 흐르는 물에서 껍질끼리 부딪히게 씻어서 불순물을 떼어내야 한다. 그다음에는 홍합 옆에 수염처럼 빠져나와 있는 족사를 잡아당겨서 제거한다. 손질하고 바로 먹을 것이 아니라면 살짝 데쳐서 살만 발라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탕에서 찜, 스투, 구이, 수프, 파스타까지

한국에서는 탕이나 찜, 혹은 홍합밥으로 주로 먹는데, 외국에서는 홍합을 스투나 구이, 수프로 만들기도 하고 살만 발라서 파스타의 부재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잘 데친 홍합을 자세히 보면 살짝 붉은 기가 도는 것이 있고, 우윳빛이 진한 것이 있는데 이 중 붉은 기 있는 것이 암놈, 흰색이 수놈이다. 둘 중에서는 암놈이 조금 더 달고 진한 맛을 낸다.

서양식 홍합탕은 나라마다 종류가 다르다. 홍합과 마늘을 함께 볶다가 화이트 와인, 생크림을 더해서 끓이는 이탈리아의 홍합 스투는 의외로 시원한 국물 맛을 내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



색다른 홍합 요리, 홍합 파스타

홍합 손질이 귀찮은 날이라면 마트에서 홍합살을 구입해 특별한 주말 요리를 시도해보자. 기본 파스타 요리에 홍합살만 더하면 끝!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이국적인 분위기를 한껏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홍합살이 반쯤 익었을 때 파스타 면을 섞는 것이 포인트.



재료

홍합살 170g, 파스타면 100g, 애호박 60g, 마늘 4알, 올리브유 4큰술, 청하(혹은 화이트 와인) 2큰술, 소금, 후추가루(취향에 따라 페페론치노 2개) 적당량



01 마늘은 편으로 썰고, 애호박은 반으로 갈라 얇박하게 썬다. 파스타면은 삶아 준비한다.



02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팬이 달궈지기 전부터 마늘을 넣어 노릇하게 굽고, 이어서 애호박을 함께 볶는다.



03 애호박이 반쯤 익으면 홍합살과 청하, 후추가루를 넣고 볶는다.



04 홍합이 반쯤 익으면 삶은 면을 넣고 간을 하고 잠시 더 볶아 완성한다.(물이 부족하면 따뜻한 면수를, 간이 부족하면 소금을 추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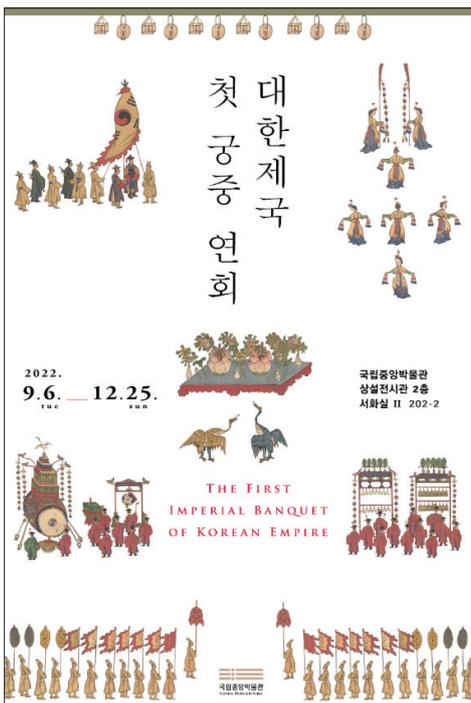


05 젓가락으로 면을 돌돌 감고, 홍합과 마늘은 따로 한데 모아 데코레이션을 완성한다.

글 배수는 **사진** 배주영 **요리** 강현정(온기 쿠킹스튜디오)

올해가 가기 전에

2022년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두 달이나 남은 셈입니다. 허전한 마음을 훈훈하게 채워줄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EXHIBITION

<대한제국 첫 궁중 연회>

1897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4년 뒤 대한제국 황실의 경사를 축하하는 궁중 연회 ‘진찬(進饌)’이 경운궁에서 열렸다. 여러 날에 걸쳐 열린 연회 중에서 다섯 행사의 장면을 그린 병풍을 ‘신축진찬도(辛丑進饌圖)’라고 한다. 대한제국 선포 후 처음 열린 궁중 연회를 그린 ‘신축진찬도’는 황실의 위상에 맞는 기물과 복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서화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기간 | 2022년 9월 6일(화)~2022년 12월 25일(일)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관람료 | 무료



출처/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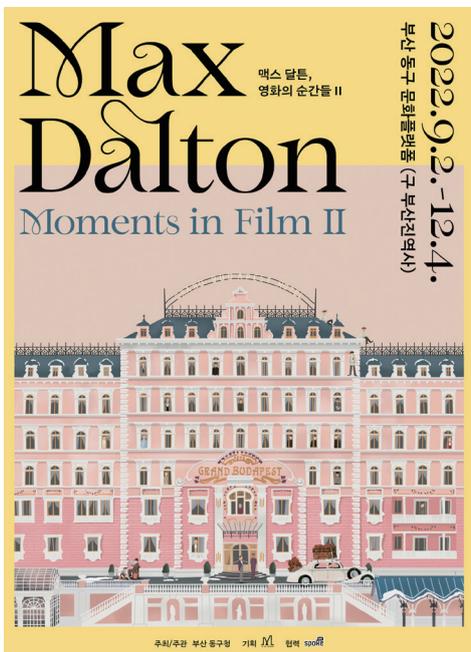
<고 이건희 회장 기증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으로 진행된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바탕으로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을 엄선하여 한국 전통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새로운 전시다. 국립중앙박물관 이건희 기증품의 첫 지역 나들이인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통을 보는 수집가의 안목과 취향을 느낄 수 있다. 매달 교체 예정인 국보 '인왕제색도'와 정약용의 '정효자전', '정부인전'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화 전시품 및 명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간 | 2022년 10월 5일(수)~2023년 1월 29일(일)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관람료 | 무료



출처/ 부산 동구청 홈페이지

ART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 II>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래픽 아티스트인 맥스 달튼의 국내 두 번째 전시가 지난해 서울 개인전에 이어 부산에서 열린다. 맥스 달튼은 뛰어난 색감과 미장센으로 국내에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영화감독 웨스 앤더슨의 대표작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맥스 달튼 특유의 물 빠진 듯한 빈티지 색감과 유머러스한 디테일을 만날 수 있다. 관람객들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영화 주제곡 청취, 영화 취향 테스트 체험 등의 이벤트를 통해 맥스 달튼의 작품 세계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다.

기간 | 2022년 9월 2일(금)~2022년 12월 4일(일)

장소 | 문화플랫폼 시민마당(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80)

관람료 | 성인 10,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무료(부산 동구민 50%, 부산 시민 20% 할인)



출처/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SNS

MOVIE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2018년 539만 관객을 동원한 <블랙팬서>의 두 번째 이야기로 4년 만에 새로운 '블랙팬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 '와칸다'의 왕이자 블랙팬서 '티찰라'의 죽음 이후 와칸다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운명을 건 전쟁과 새로운 수호자의 탄생을 다룬 올해 마지막 마블 영화다. 전편에 이어 라이언 쿨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1월 9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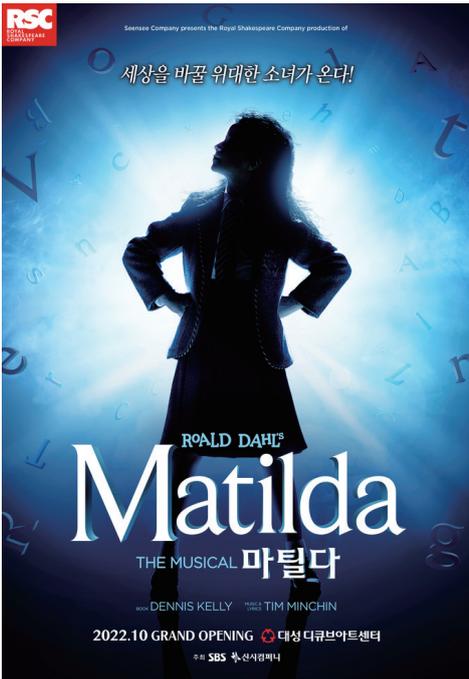


출처/ CJ CGV SNS

MOVIE

<동감>

2000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 <동감>의 리메이크작. 배우 여진구와 조이현이 주연을 맡았다. 원작 <동감>은 99학번 유지태와 77학번 김하늘이 보여준 판타지 로맨스로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번 리메이크작은 1999년을 사는 남자와 2022년을 사는 여자가 서로 다른 시대의 하늘 아래서 무전기를 통해 대화하며 사랑을 이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느낌으로 우리의 추억과 감성을 건드려줄지 기대를 모은다.



출처/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SNS

MUSICAL

<마틸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작가 ‘로알드 달’의 동화에서 탄생한 뮤지컬이다. 2010년 초연 이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으로 꼽힌다. 특이한 캐릭터와 기발한 상상력 그리고 빠른 전개가 매력적이다. 주인공 마틸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즐기는 소녀라는 설정이 더해져 유머까지 느낄 수 있다. 동화적 상상력이 가득 찬 무대는 관객들에게 보는 재미와 함께 잊기 힘든 기억을 선사한다.

기간 | 2022년 10월 5일(수) ~ 2023년 2월 26일(일)

장소 | 대성 디큐브아트센터

관람료 | VIP석 150,000원, OP석 140,000원, R석 130,000원, S석 100,000원, A석 70,000원

글 김성식

웃으면 복이 와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는 말처럼 웃음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기분 좋아지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부른다. 웃음 전문가 김영식 교수가 들려주는 웃음의 효과를 알아보자.



바야흐로 플랫폼 산업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미래학자들마저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은 우리 삶의 지도를 바꿔 놓고 있다. 사람 중심의 사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혼합형 가족 사회가 등장하면서 우리의 웃음도 공동체적인 웃음 문화에서 ‘플랫폼형 웃음’으로 바뀌고 있다. 젊은이들은 혼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과 맞는 웃음 코드를 찾아 킁킁대며 “웃겨, 웃겨” 외치면서 웃는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왜 웃는지 모른다. 어른들의 웃음 코드와 아이들의 웃음 코드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웃음도 4G, 5G처럼 이제는 속도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웃음의 본질만은 변함이 없다.

웃음은 긴장이 해소되며 나타나는 신체 현상

원래 웃음(笑, laughter)이란 한마디로 쾌적한 정신 활동에 수반된 감정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웃음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내면적 긴장 상태가 일순간에 해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고도의 정신 과정에 의해 생기게 된다. 생후 5개월 된 유아가 엄마와 “까꿍(覺穹)”을 하면서 깔깔대며 웃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엄마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 유아는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일시적으로 심리적 긴장감을 느낀다. 그런데 다음 순간 엄마가 얼굴에서 손수건을 떼면 다시 엄마 얼굴이 나타남으로써 순식간에 긴장이 풀리면서 유쾌하게 웃게 된다. 여기서 웃음은 심리적 긴장이 해소되는 순간 나타나는 신체적, 생리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 웃음의 의미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정신적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의미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웃음을 신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횡격막의 짧고 단속적(斷續的)인 경련적 수축을 수반하는 깊은 흡기(吸氣, 내뿜는 호흡)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를 움켜잡고 웃을 때 몸이 흔들리고 머리는 앞으로 끄덕여지며, 아래턱이 위아래로 흔들리며 입이 크게

벌어진다. 싱글벙글 웃는 것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능글능글 웃는 것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이며, 히죽히죽 웃는 것은 악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깔깔 웃는 것은 기쁨이 없음을 나타내고, 큰소리로 웃는 것은 대범함을 나타낸다. 웃음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웃을 소(笑)는 요(夭), 즉 요염하게 앉아 있는 여자의 모양과 대나무(竹)의 흔들리는 소리가 웃음소리 같다는 뜻이 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아래로 쉬는 한숨보다는 위로 내쉬는 웃숨(웃음)이 심장의 화(火)를 제거하는 데 명약이라는 말도 있다.



코로나를 이기는 웃음치유와 웃음치료

코로나19 사태는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활동, 마스크 쓰기, 감염으로부터의 공포 등으로 인하여 웃음이 사라진 사회를 만들었다. 또한 분노조절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약 20여 년 전부터 ‘웃음치료’가 아토피성 피부염, 암 환자 치료, 우울증 극복 등 많은 질병에 효력이 있다고 알려졌다. 일단은 웃음치유와 웃음치료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하다.

웃음치유는 웃음으로 마음의 부조화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담, 대화, 명상, 종교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부조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내면으로부터 그 해결책을 찾아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 웃음치료는 웃음치유보다 실천적인 개념으로, 웃음으로 우리 몸의 부조화를 치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간이 가진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인 불리함을 웃음을 유발하는 노래, 춤, 게임 등의 행위를 통해 예방, 재활, 치료한다.

최근 자기 스스로를 토닥거리며 우울한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여기에 웃음을 더하면 좋다. 조용히 앉아서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기 자신에게 “영식아 나는 네가 좋아. 영식아 너는 참 잘하고 있어. 영식아 우린 잘 이겨낼 거야. 하하하하하” 하고 가볍게 미소를 짓거나 웃어본다. 이렇게 15초~20초 정도를 하고 나서 심호흡을 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한다. 3번 정도 반복하고 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

웃음이 생명을 살린다

웃음은 생리적으로는 일종의 근육운동으로, 650개의 근육군 중에서 한 번의 웃음으로 230개 이상의 근육을 운동시킨다. 웃음을 웃게 되면 엔도르핀, 엔케팔린,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유익한 호르몬이 증가하고 백혈구의 면역력 세포인 T, B, NK세포 등이 활성화되어 아토피성 피부염이 완화되고 암세포가 줄어드는 등의 효능을 볼 수 있다.

심리적으로는 웃음은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사회적으로는 잘 웃고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 인간관계도 원활하다. 인상이 바뀌면 관상이 바뀌고 자신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웃음이 생명을 살린다. 지금까지 필자는 수많은 암 환우를 비롯한 환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웃음을 통해 생명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아왔다. 웃음은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서 차가워진 우리 마음을 치유해준다. 지금 우리에게 웃음이 필요하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직장과 학교에서 웃음소리가 나야 한다. 세상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우울할 때 ‘하하호호호’ ‘하하호호호’ ‘하하호호호’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며 운동하듯 웃어보자.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글 김영식(남부대학교 교수, <사람을 살리는 웃음> 저자)

“밝고 유연한 공무원이 되려 합니다”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정윤서 주무관은 올 상반기 안산시 친절 공무원 상을 받았다.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잘 웃어서 받게 된 상이 아닌가 싶다는 그는
“제가 특별하다기보다 특별한 민원인들을 많이 만난 덕인 것 같다”라며 공을 민원인들에게 돌렸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공무원이 되기 전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업무 사이에 느끼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기업에 다니다 공무원을 준비해서 이직했는데 사기업에 다닐 때도 민원 관련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던 분야였어요. 공무원을 준비하면서도 사전에 많이 알아보고 했던 터라 큰 차이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일하셨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는지 궁금해요

보통 ‘그린벨트’라고 알려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 인허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해진 불법행위 적발 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이 제 업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성상 위법 행위를 확인하는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원은 위법행위에 대해 예상되는 이행 강제금이 얼마인지, 하고자 하는 설치물을 신고하고 설치해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원상 복구 방법에 대한 상담도 많고요. 이 법령 자체가 특별법이다 보니 해석에 이견도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민원인을 도울 부분이 많아서 보람된 일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민원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일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민원 혹은 민원인이 있었나요?

지금 이 부서에 온 지는 아직 3개월밖에 안 돼서 그전에 도시주택과에서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때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 그분이 문의하실 때 20년대 건물이라고 하셔서 2020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920년대 건물이었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더라고요. 다만 워낙 옛날이라 건축물대장은 남아있는데 관련 자료가 그것 딱 한 장뿐이라 민원인이 해결을 원하는 부분에 직접적인 도움은 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민원을 해결해 드린 건 아니지만 아쉽기도 하고 희귀한 일이라 기억에 남아요.

뿌듯한 순간도 많지만 힘들었던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신가요?

도시주택과에서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를 할 때인데요. 대출을 비롯한 모든 금전적인 절차는 건축물대장이 정리되어 있어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분들은 대부분 법적 기한보다 훨씬 더 빨리 자신의 민원이 처리되길 바라세요. 보통 백 명 중 99명은 하루 이틀 안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거든요. 저도 빨리 처리해 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 민원 업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급하다고 계속 전화를 하시고, 그 전화 응대 때문에 업무가 또 지연되고, 그런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정윤서 주무관님이 해결하신 민원 중 뿌듯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소소한 것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간단한 민원 내용이었는데, 제가 전화로 설명을 드리고 관련 법령을 찾아 문자를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하셔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작은 일들이 민원인들에게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계기였어요.

상반기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되셨는데, 어떤 부분이 특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화가 오면 밝은 목소리로 받고 잘 웃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격이 밝은 편이거든요. 제가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된 건 제가 특별히 친절해서라기보다 특별한 민원인분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친절하게 응대한 공무원을 만났더라도 ‘그 사람 친절하더라’ 생각만 하고 말지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선정된 게 아닌가 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게 매니큐어도 바르고 머리 색깔도 밝은데, 이런 부분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일이 예쁘다 어디서 받았냐’ 물어보시면서 분위기가 풀리기도 하고, 대부분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그분들의 긍정적인 기운이 저에게 힘을 주는 느낌입니다.



민원인분들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 욕을 하시는 건 삼가주셨으면 해요. 저도 응대할 때 ‘우리 엄마라면, 아빠라면’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내 딸이고 아들이다’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화가 나실 수 있다는 건 이해하는데 다만 지나친 표현은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좋을 듯해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계획이 있거나 바라는 바가 있나요?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던 민원인의 말씀처럼 공무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공무원은 뭔가 경직되어 있고 업무 시간에도 한가하게 일하면서 세금으로 월급만 받아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자체가 경직된 이미지보다 저처럼 탈색 머리도 하고 네일도 할 수 있는 유연하고 밝은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배수는 사진 김재형

한국인의 웃음을 찾아서

코로나19 이후 웃음은 우리 곁에서 조금 더 멀어졌다. 이젠 웃음을 되찾아야 할 때. 그러자면 웃음의 기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소박하고 여유로운 한국인의 웃음을 되살려 한바탕 시원하게 웃어보자.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인간은 웃는 동물이다. 웃을 만한 감정 상태에 놓이면 웃는다.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대형 유인원도 소리를 통해 인간의 웃음과 유사한 그들만의 소통을 추구한다고 한다. 그러나 웃음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고유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웃지 않는 자는 인간이 아닌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이 상대를 비판하면서 “소가 웃을 일”이라며 핏대를 높이는 것도, 소는 인간과 달리 웃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감정과 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웃음

웃음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인간의 감정에서 찾을 수 있다. 희로애락(喜怒哀樂) 등 인간의 감정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웃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활동 가운데 일상성 너머에 있는 어떤 파격이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웃음은 인간 자신이 내적 감정을 드러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외적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어떤 징표이다.



우리는 흔히 웃음을 미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기도 한다. 어떤 예술 작품이 송고미와 비장미, 골계미와 우아미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 하는 것인지를 따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골계미는 풍자와 해학을 기반으로 하는데, 풍자는 대상을 날카롭게 공격하는 데서 발생하고, 해학은 대상에 공감하며 동정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풍자를 가시 돋친 웃음이라 하고, 해학을 동정 어린 웃음 이라고 한다. 웃음은 이처럼 상대를 공격할 때도, 동정할 때도 발생하는 것이다.

우선 웃음이 눈물과 대칭을 이룬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눈물 없는 웃음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죽음이 없으면 삶도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남녀와 주야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음양론에 기반한다. 이 때문에 기쁨은 항상 슬픔과 함께 나타나고, 웃음 역시 눈물을 동반한다. 흥이 다하고 슬픔이 온다는 흥진비래(興盡悲來)도 이렇게 생겨난 말이다. 이처럼 웃음은 간단한 것이 아니며, 그 반대편의 것과 함께 이해할 때 심도를 더하게 된다.

한국 고전에서 발견하는 눈물 속의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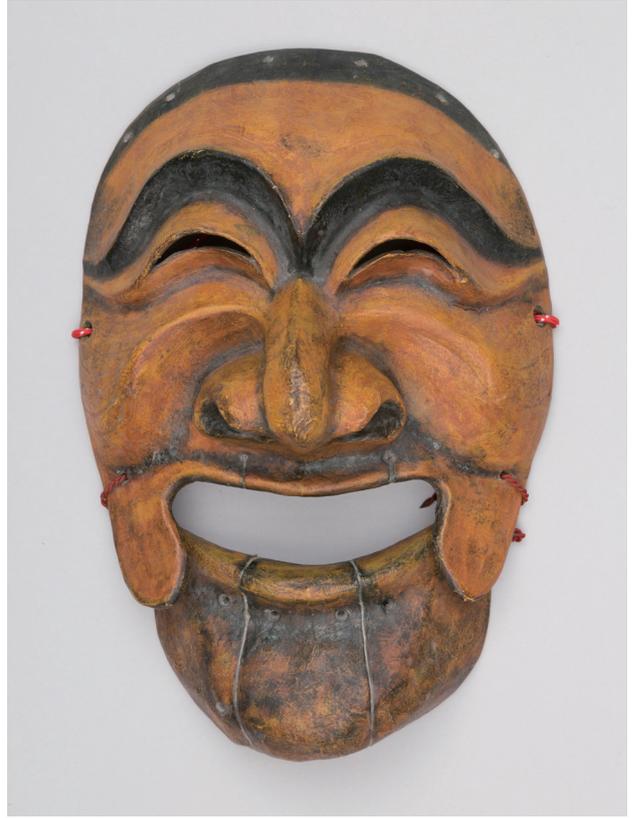
우리는 흔히 한국 문학의 특징을 한(恨)과 신명(神明)으로 요약한다. 한이 험난한 경험에 의한 심각한 고민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라면, 신명은 감흥이 고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커다란 시련이나 고난을 넘어서는 역할을 한다. 슬픔과 눈물에 의한 한을 기쁨과 웃음의 신명으로 풀어낸다는 것이다. 문학이나 예술은 한도 풀고 신명도 풀어낸다. 예술창작의 최고 경지는 한 속에 신명이, 신명 속에 한이 개입될 때 이루어진다. 심각하면서도 경쾌하고, 경쾌하면서도 심각하다. 이를 우리는 눈물 속의 웃음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눈물 속의 웃음은 한국의 고전문학 속에 즐비하다. <흥부전>을 보자. 흥부가 놀부 집에 갔다가 형에게 두들겨 맞고 형수나 보고 가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형수에게 밥주걱으로 뺨을 얻어맞는다. 형수에게 뺨을 맞은 흥부는 두 눈에 불이 나서 뺨을 슬며시 만져보니 밥이 불에 붙어 있다. 이것을 입으로 훔쳐 넣으며 다른 뺨도 때려달라고 하니, 형수가 이제 부지깽이로 흥부를 때린다.

선량한 흥부를 보면서 우리는 그의 가난에 대해서 동정한다. 그러나 흥부가 불에 붙은 밥알을 떼어서 게걸스럽게 먹고, 아이들에게 밥 구경이라도 시켜주려고 하니 다른 뺨도 때려 달라고 하는 데서 웃음을 일으킨다. 수숫대로 지은 그의 집도 너무 작아 안방에 누워서 발을 뺨으면 발목이 벽 밖으로 튀어 나가고, 방에서 멋모르고 일어서면 목이 지붕 밖으로 나가 칼을 쓴 듯하다. 작은 수숫대 집에 온 가족이 가난하게 사는 데서는 눈물을, 그 비참한 삶을 과장되게 묘사한 데서는 웃음을 유발한다. 그야말로 눈물 속의 웃음이다.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소박하고 여유로운 한국인의 웃음을 찾아

우리의 삶은 눈물만도 아니듯이 웃음만도 아니다. 눈물은 한의 정서이고 웃음은 신명이 표징이다. 한이 하강하는 정서라면 신명은 상승하는 정서이다. 한과 신명은 한편으로 하강하고 한편으로 상승하며 보다 큰 세계를 만들어낸다. 한국인의 정서에는 이러한 한과 신명의 이중주가 있는데, 신명으로 한을 풀어 인생을 슬기롭게 한다. 민화나 석조 예술에서는 웃음이 왜곡과 과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왜곡과 과장 역시 고달픈 삶을 경쾌하게 만들기도 한다.

웃음은 따지고 비판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에 우리의 감성을 내맡기면서 대상을 포용하는 여유로움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우리는 이성에 입각한 근대성을 무척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 근대성은 전통적 웃음을 포위하고 말았다. 우리의 전통 문학에는 근대 예술이 보여주는 세련성은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소박하면서도 여유롭다. 한국인의 웃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우리가 웃음의 진정성을 다시 찾는 이유이다.

글 정우락(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미술의 미소

우리는 흔히 미술은 진지하고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친근하고 호감 넘치는 내용과 분위기로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미술품도 많다.
이 작품들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어보자.



장 줄리앙의 퓨전

장 줄리앙 'Fusion', 2022 사진 제공 | 장 줄리앙 스튜디오

싱긋 웃고 있는 두 인물이 마치 체조를 하듯 옆구리를 구부려 양손을 마주 잡고 있다. 2023년 1월 8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프랑스 출신의 그래픽 아티스트 장 줄리앙(1983~)의 첫 회고전 <그러면, 거기>의 야외 설치 작품 '퓨전'이다. 그런데 잠깐, 어린 시절 만화를 열심히 봤던 사람이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다. 그렇다, <드래곤볼>의 합체 기술 퓨전!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감정을 명쾌한 선으로 유쾌하게 표현하는 장 줄리앙은 자신의 그림 속에 어린 시절 좋아하던 것들의 영향이 녹아 있다고 이야기한다. 지난 20년간 일상을 기록한 스케치북 100여 권으로 시작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들은 장 줄리앙이 가족과 친구,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아티스트로 성장해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중섭의 애들과 물고기와 게

이중섭 '애들과 물고기와 게', 1950년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발가벗은 두 아이가 물고기와 게와 어울려 즐겁게 놀고 있다. 해맑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표정을 바라보고 있으면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피어오르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된다. 간결한 데생과 담채 기법으로 완성된 이 작품은 쉽게 어울리지 않는 붉은 색조와 초록빛의 조화가 신비로우면서도 평화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인 대향(大鄕) 이중섭(1916~1956)은 민족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강렬한 '황소' 그림과 더불어 가족을 향한 사랑이 묻어나는 따뜻한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50년 12월 전쟁을 피해 아내 아사코와 두 아들을 데리고 도착한 제주도에서의 1년. 물고기와 게를 굶고 살아 먹으며 가족과 함께했던 그 1년이 화가 이중섭에게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한다.



이슬기의 부엉이 살림

이슬기 '부엉이 살림', 2018 사진 제공 | 갤러리현대

우리 전통 오방색과 기하학적 형상을 사용해 부엉이의 눈과 눈썹, 날개를 익살스럽게 표현한 작품.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원색의 배치처럼 '부엉이 살림'이라는 제목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쩍부쩍 느는 살림을 이르는 말이다. 더 재미있는 건 이 작품이 그림이나 조각이 아니라 '이불'이라는 사실! 한국 속담을 누비 이불로 표현한 이슬기 작가의 <이불 프로젝트 U> 연작 중 하나다. 프랑스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이슬기(1972~) 작가는 누비 이불의 찬란한 색감에 매료되어 통영 누비 장인과 함께 이불을 활용한 현대미술 작품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한 줄 한 줄 염원하듯 실을 박아 넣는 장인의 정성이 마치 주술처럼 작품을 통해 전달되리라 생각했다고. 이 주술적이면서도 유쾌한 이불의 기운을 받아 모두의 살림이 부쩍부쩍 늘어나시기를.



르네 마그리트의 통찰력

르네 마그리트 'La Clairvoyance', 1936, 시카고미술관 소장

양복 차림의 화가가 가는 붓으로 새를 그린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가 있는 테이블 위엔 새가 아닌 알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다. 그림을 보는 우리는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뭔가를 깨닫고 슬며시 미소 짓게 된다. 그러니까 그림 속 화가는 알 그 자체가 아닌, 알에 잠재된 가능성, 날개를 활짝 펼친 새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림의 제목도 '통찰력(La Clairvoyance)'!

르네 마그리트(1898~1967)는 유머와 초현실주의를 미술의 영역에 포함시킨 선구자 중 한 명이다. 벨기에 출신의 화가인 마그리트는 '통찰력'에 그려진 자화상처럼 늘 양복을 갖춰 입고 그림을 그렸기에 주변 사람들은 그를 화가가 아닌 샐러리맨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권기수의 금박 동구리

권기수 'Bubbly-a Yellow Boat-Gold', 2021-2022 사진 제공 | 아틀리에 아키

동그란 얼굴에 빙그레 웃는 큰 입, 먹물로 콕 찍은 것 같은 눈과 삐죽 선 머리 몇 가닥. 회화 작가 권기수를 대표하는 캐릭터 '동구리'가 화려한 금박을 배경으로 뛰노는 '금박 동구리'로 돌아왔다. 전통적으로 금은 종교적 성상화나 임금의 초상화 등에 쓰여 신성과 권위를 상징해 왔지만 '금박 동구리' 작품 속에서는 배경으로 물러나 한결 친숙하게 느껴진다. 홍익대 동양화과 출신인 권기수 작가(1972~)가 작업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1년에 1,000컷 넘는 일러스트를 그리던 시절, '웃을 수밖에 없는 작가 자신'을 그린 그림이 '동구리'의 원형이었다. 하지만 작품을 감상하는 우리는 더없이 자연스럽게 웃음 짓게 되는 동구리, 이런 것이 미술의 즐거움 아닐까?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팔레르모, 시칠리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Palermo, Sicily', 1971, 개인 소장

아이들이 굴렁쇠를 굴리며 뛰어다니는 사진 속에선 당장이라도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 같다.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사진이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에서 시선을 옮기면 더욱 흥미로워진다. 아이들이 굴렁쇠를 굴리는 보도 위쪽 차길은 교통 체증으로 꽉 막혀 있는데, 그 한가운데 멈춰 있는 검은 차는 운구차로 보인다. 아이들과 죽음, 그 즐거움과 슬픔을 한 장면으로 표현한 작품. 이 작품을 촬영한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1908~2004)은 사진을 '기록'에서 '예술'로 승화시킨 주인공이다. 작은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서 펼쳐지는 삶의 풍경을 기막히게 포착해낸 '결정적 순간'으로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누구나 인정하는 20세기 최고의 사진작가가 될 수 있었다.



신재현의 까치와 호랑이

신재현 '까치와 호랑이', 1930년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새끼 호랑이 세 마리를 돌보고, 까치 네 마리가 소나무에 앉거나 하늘을 날고 있다. 속눈썹을 예쁘게 치장한 어미 호랑이와 까치들이 한데 어우러져 자아내는 분위기가 밝고 명랑하다. 백성과 더불어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지도자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우리 민화에서 까치와 호랑이는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동물이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와 액을 막아주는 호랑이를 함께 그린 그림을 우리 선조들은 복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전한다고 믿으며 오랫동안 사랑해왔다. 흥미로운 것은 까치와 호랑이가 그려진 민화에선 일반적으로 두려움과 힘의 상징인 호랑이가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작은 까치가 기세등등하게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왜 교과서에서 배운 미술 작품에선 웃는 얼굴을 찾기 어려웠을까? 과거 유럽에서는 웃는 얼굴을 경박하고 천하게 여겨, 예술적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에 소개한 작품들처럼 차근차근 살펴보면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미술 작품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미술은 엄숙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하는 작품을 찾아보시기를.

글 정규영(칼럼니스트)

실패하지 않는 투자, 인구 수요와 주변 인프라를 통해 보다 안정적 수익을 도모한다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투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행정공제회는 인구 수요와 주변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투자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 매입한 목동 트라펠리스 가로변 상가와 해외에 투자한 美 워싱턴주 시택오피스센터, 라스베이거스 사우스웨스트 사업단지를 소개한다.

국내 투자

목동 핵심 상권에 위치한 선호도 높은 우량 자산



목동 트라펠리스 가로변 상가

행정공제회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보유한 목동 상권 내 핵심 입지라 할 수 있는 트라펠리스 가로변 상가를 핵심자산으로 매입했다. 2009년 준공된 연면적 7,472평의 자산으로 이스턴-웨스턴 예비뉴로 구분되어 있는데, 서울 3대 학원 밀집 상권으로 손꼽히는 오목교역 학원가에 위치한 데다가 3만 세대 이상의 배후수요를 보유한 목동 내 초역세권 생활중심지역으로 입지 분석은 더 할 필요도 없다. 임차 선호도가 높은 평면구조를 가졌고, 모든 호실이 오목교 대로변에 접해 교통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나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 중간에 위치해 도보 5분 거리로 오갈 수 있는 데다가, 반경 500m 내 17개 노선의 버스정류장이 존재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도 훌륭하다.

목동 트라펠리스 가로변 상가는 현재 임대율 97.4%를 바탕으로 자산운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풍부한 임차수요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공실률 3% 이하로 관리되어왔다. WM센터와 대형 학원, 병·의원 등 안정적인 상권 구성으로 10년 이상 임차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나타내는 등 높은 임차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착공 예정인 목동선 지하철을 비롯해 강북형단선, 신구로선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유동인구 수요 확대 가능성이 풍부하다. 또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및 인근 정비사업 추진으로 배후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향후에도 목동상권의 중심지로서 충분한 성장가치가 기대되는 자산이다.

해외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는 Non-Core 전략 투자

Core 자산 가격의 고점 우려와 기대수익률 하락에 따라 행정공제회는 Non-Core 전략 투자를 통해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산업수요를 기반으로 인구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도시 중에서도 주변 인프라 신설 덕분에 반사 이익을 누리는 지역에서 자산을 매입하고, 가치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행정공제회가 투자하여 매입한 자산을 소개한다.



1 시택오피스센터 SeaTac Office Center (오피스)

워싱턴주 시택(SeaTac) 중심부에 위치한 5만 980㎡(약 15,420평), 3개의 빌딩(12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 2개와 4층 규모의 오피스 및 주차장 빌딩 1개)으로 구성된 오피스다. 시택국제공항 가까이 위치해 있다. 엘리베이터, 회의실, 화장실, 카페 등 공용시설 개선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해당 자산은 약 37개의 임차인이 임차하여 약 90%의 임대율을 보이고 있다. 해당 자산은 2025년 중 매각할 계획이다.



2 사우스웨스트 물류센터 Southwest Corporate Campus (물류)

라스베이거스 사우스웨스트 서브마켓에 자리한 3만 795㎡(약 9,300평) 규모의 물류센터로 임대율 100%를 자랑한다. 215 순환 고속도로 입구까지 약 2km, 맥캐런국제공항까지 약 8km 거리에 위치하여 해당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저가에 매입하여 주차대수 증대와 외관 정비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했고, 임대차 기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임대료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

글 정명효

POBA 뉴스 Vol. 18

성공적인 자산 운용과 양질의 회원 서비스를 위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행정공제회의 반가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1. 지난 10월 20일 부산 영도에서 ‘찾아가는 행정공제회’ 성료

POBA 행정공제회

찾아가는 행정공제회 “든든 간식차” in 부산 영도구

이 전하는 말씀

안녕하세요, 행정공제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현업에 최선을 다 해주시는
**회원님께 행정공제회에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회원님께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어 기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이 함께하는
즐거운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 간식이벤트 일정

간식이벤트

일시 2022년 10월 20일(목) 07:30~09:00

장소 부산 영도구청 지하1층 대강당 앞

선물 커피&음료+뉴욕핫도그



03 특별한 선물

총 100만원 상당의 선물
설문 이벤트

간식 이벤트를 즐기신 후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2명 제주항공권 (1인 왕복, 최대 15만원)	 10명 스타벅스 3만원 (기프트콘 지급)	 40명 스타벅스 1만원 (기프트콘 지급)
--	---	--

응모 기간 2022.10.20~2022.10.21
응모 방법 위 QR코드에 접속 > 설문조사 응답 > 이벤트 응모 완료
결과 발표 2022.11. 04 15시 이후
 (당첨 회원 개별 통지 예정)

조식차 만족도 조사 QR



04 간식이벤트 후 일정

회원 상담 서비스

장소 지하1층 대강당
시간 09:10~10:10(1시간)
내용 1:1 맞춤형 공제상품 컨설팅, 복지서비스 분야, 공제회에 바란다 등
현장 이벤트 회원상담서비스 참여 전원 소정의 선물 지급
 퇴직급여 신규회원 가입신청서 제출 후, 선물 지급

공제회 설명회

장소 지하1층 대강당
시간 10:20~11:20(1시간)
이벤트 설명회 설문조사 참여 시 추첨을 통해 선물 지급
내용 본회경영현황, 달라지는 공제제도 및 복지서비스 소개, 질의응답

행정공제회는
회원 삶의 가치를 더하며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2. 회원 콘도 100억 원대 추가 계약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들의 취향에 부합하는 고품질 콘도 시설을 제공하며 회원들의 여가와 복지에 대한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님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1년부터 회원콘도 운영 구조를(회원가+@ → 회원가 이용) 개선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고급화’와 ‘차별화’를 지향하는 숙박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상반기에 100억원대 추가 계약을 완료**하는 등 회원님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지역별 프리미엄 콘도를 대폭 확보**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소노문 단양



소노벨 경주



소노벨 변산



소노벨 비발디파크



소노벨 제주



소노벨 천안



소노캄 거제



소노캄 델피노



소노캄 여수



소노캄 제주



소노펠리체 비발디파크



소노휴 양평



쏟비치 삼척



쏟비치 양양



쏟비치 진도

3. POBA 누리 회원을 위한 무료 숙박 이벤트!

5성급 호텔부터 최고급 리조트까지, 매월 초 진행되는 1박 2일 무료 숙박 이벤트가 2022년 말까지 계속됩니다! POBA 누리 회원들에게 더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드리기를 위해 준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정된 호텔에 원하는 날짜를 신청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1박 2일 무료 숙박의 기회를 드립니다.

응모 기간: 매월 1~12일

당첨 안내: 매월 13일

투숙 일정: 매주 토요일 (성수기 제외)

*아래 이벤트 안내를 참조해주세요.

POBA누리 회원을 위한
1박 2일 무료숙박
체험 EVENT

Q 무료숙박 체험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 인가요?
A POBA누리 회원님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1박2일 무료숙박 이벤트입니다. 지정된 호텔에 원하는 날짜를 신청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1박 2일 무료숙박의 기회를 드립니다.

파크로얄 리조트 앤 웰니스
강릉 시마크 호텔
그랜드 조션 부산

매월 참여 가능

원하는 숙박시설과 날짜를 선택하여 응모해주세요!

응모기간 1~12일	당첨안내 13일	투숙기간 매주 토요일 ※ 상수기 제외
----------------------	--------------------	-----------------------------------

1박 2일 무료숙박 5성급 호텔 라인-업



POBA누리에서 준비한 호텔에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 되세요.



1박2일 무료숙박

그랜드 조선 부산 5성급 호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2
다익스텝 1 | 기준 2인 / 최대 성인 2인, 소인 1인



1박2일 무료숙박

강릉 씨마크 호텔 5성급 호텔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406번길 2
프리미엄 디렉스 트윈 오션 | 기준 2인 / 최대 4인



1박2일 무료숙박

파크로쉬 리조트 앤 웰니스 4성급 호텔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중봉길 9-12
숙원 스위트 | 기준 2인



이벤트 안내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응모횟수 및 응모제한 안내
 - 매주 토요일 모든 투숙일자에 응모 가능합니다.
 - 날짜 별로 한 곳만 응모 가능하며 동일 날짜에 중복응모는 불가능합니다.
 - 당첨결과는 LMS로 개별 공지 및 응모 마감 후 2영업일 후에 공지사항에 안내됩니다.
 - 일정 변경은 불가하며, 취소 및 영도만 가능합니다. (예약번호 확인 必)
 - 숙박 3일 전까지 취소 요청권에 대해 위소가 가능하며 02-360-212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숙박권의 이용이 불가할 경우 예약번호 확인 후 본인 외 투숙이 가능합니다.
- ※ 노쇼 안내
당첨안내가 되었으나, 당첨자가 취소 규정일이 지난 후 취소하거나 숙박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노쇼시 추후 당첨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1522-5917

평일 AM 09:00 ~ PM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공휴일 휴무

한아름목돈예탁의 모든 것

한아름목돈예탁은 회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목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최적의 상품입니다.

1. 특징

- ① 높은 부가율(이율) 최대 연 4.50%(변동금리, 2022년 11월 1일 부)
- ② 가입 한도(5억 원까지 가능)
- ③ 1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에 따른 부가금(이자) 차감 없음
- ④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 기타사항

- 한아름목돈예탁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향후 부가율 조정 시 부가율 조정일부터는 조정된 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부가금 지급율에 따라 이자를 정산 지급합니다.

2. 가입 대상 : 본회 회원으로 가입한 일반회원과 본회 회원으로서 퇴직한 회원.

3. 가입 금액 : 최소 100만 원 ~ 5억 원(100만 원 단위 가입, 여러 건 가입 가능).

4. 지급 방법 :

종류

구분	만기지급식	부가금지급식	원리금지급식
지급방법	목돈으로 가입하면, 만기에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 일시 지급	목돈으로 가입하면, 가입 기간동안 매월(매년) 부가금(이자) 지급 후 만기에 부담금(원금) 지급	목돈으로 가입하면, 가입 기간동안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 합계를 균등 지급, 만기시 부담금(원금) 소멸
지급주기	만기시	매월 / 매년	매월
가입기간	6개월, 1, 2, 3, 5년		6개월, 1, 3, 5, 10년

금리(연금리)

가입기간	만기지급식	부가금지급식		원리금지급식
		월지급	연지급	
6개월	3.40%	3.35%	3.40%	3.35%
1년 이상	4.50%	4.40%	4.50%	4.40%

지급액 예시표

구분	지급주기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만기지급식	만기에 원금+이자	170,000	450,010	920,260	1,411,670	2,461,820	-
부가금지급식	매월 이자, 만기 원금 수령	28,140	36,750	36,750	36,750	36,750	-
원리금지급식	매월 원금+이자	1,683,120	853,380	-	297,070	186,030	103,210

1,000만원을 1년 예치한 경우

구분	가입 기간 동안	만기 시점
만기지급식	-	10,450,010원
부가금지급식(월)	매월 부가금 36,750원 수령	10,036,750원
원리금지급식	매월 부담금+부가금 853,380원 수령	853,380원

Q: 한아름목돈예탁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A:** 신규 가입의 경우,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한아름목돈예탁 → 한아름가입신청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기재된 휴대전화로 회원전용 입금계좌가 전송됩니다.
계좌로 입금을 완료하시면 본회에서 담당자가 확인 후 최종 가입확정이 됩니다.
신청금액이 최종 입금완료된 날짜로 가입이 확정되며, 각 단계별(가입신청-입금-가입확정)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Q: 한아름목돈예탁 만기 시 재가입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 A:** 한아름목돈예탁 재가입은 만기일 약 2주 전부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만기 20일 재가입의 경우 당월 6일부터, 만기 5일 재가입의 경우 전월 21일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아름목돈예탁 만기일 1~2주 전에 만기예정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재가입 의사가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한아름만기 재가입 신청하거나 재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만기 2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본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재가입 처리를 해드립니다.

Q: 한아름목돈예탁 만기 시 예탁금은 어떻게 하나요?

- A:** 한아름목돈예탁 만기일 1~2주 전에 회원님께 만기예정 안내문자(안내문)를 발송해 드립니다.
만기 시 별도 해지신청 없이 한아름목돈예탁 가입 시 등록된 계좌로 만기일에 만기금을 자동 송금됩니다.

Q: 한아름목돈예탁에 추가 가입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한아름목돈예탁에 추가로 가입(입금)하실 때마다 가입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의 예탁이자 수령통장 외에 회원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수령을 원하실 경우,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인터넷 신청 시 통장사본 생략).

Q: 한아름목돈예탁 가입 중에 급여 종류 및 가입기간,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 A:** 가입확정된 한아름목돈예탁에 대해서는 급여종류 및 가입기간, 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꼭 변경을 하셔야 한다면 중도해지를 하시고, 다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예치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습니다.

Q: 한아름목돈예탁을 일부만 해지할 수 있나요?

A: 한아름목돈예탁은 부분해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예치하신 금액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 적용금리와 구비서류는 중도해지와 같습니다.

〈부분해지조건〉

- 만기지급식.
 - 가입기간을 1년 이상 약정한 부가금지급식으로 가입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부분해지 신청은 100만 원 단위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부분해지 후 예탁금이 최소 100만 원 이상 유지되어야 함.
- ※ 예탁금 중 부분해지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적용함.

Q: 한아름목돈예탁 중도해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A: 한아름목돈예탁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신청서를 해지희망일 전날까지 본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시 부가금 지급율〉

예치 기간	부가금 지급기준
3개월 미만 예치 후 해지 시	산출부가금의 3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예치 후 해지 시	산출부가금의 5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예치 후 해지 시	산출부가금의 70%
1년 이상 예치 후 해지 시	산출부가금의 100%

Q: 공제회 퇴직급여금을 한아름목돈예탁급여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재직 중인 회원님의 공제회 급여금은 한아름목돈예탁급여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회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신 회원님 중 한아름목돈예탁 가입을 원하시면 퇴직급여 신청 시 한아름목돈 함께 신청해주실 경우 공제회 퇴직급여금 처리 시 예탁금 가입처리를 해드립니다.

Q: 한아름목돈예탁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기간 동안 매월 원금과 부가금(이자)을 분할 수령하는 『원리금지급식』 과 가입기간 동안 매월(매년) 부가금 수령 후 만기 시 원금을 수령하는 『부가금지급식』 가입기간 만료 시 원금과 부가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만기지급식』 이 있습니다.

※ 원리금지급식 : 가입기간 중 매월 원금(분할)과 이자가 지급되어 만기 시 원금이 소멸됩니다.

Q: 한아름목돈예탁에 가입 중 비과세 자격을 취득했는데, 비과세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 자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2에 의한 조세감면 사항으로 가입 시에 그 자격을 확인하므로

한아름목돈예탁 가입 후 비과세 자격을 취득하시더라도 자동전환 및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자격취득 후 전환은 부득이 한아름목돈예탁을 중도해지하시고,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셔야 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예치기간에 따라 별도의 중도해지율을 적용하여 해지이자가 계산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아름목돈예탁급여·분할지급퇴직급여 부가율 인상

행정공제회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부가율을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아름목돈예탁 부가율 조정현황(변동금리, 세전)

구분		현행	조정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만기지급식·부가금연지급식	1년	연 3.50% → 연 4.50%
		6개월	연 2.90% → 연 3.40%
	부가금월지급식·원리금지급식	1년	연 3.44% → 연 4.40%
		6개월	연 2.87% → 연 3.35%
분할지급퇴직급여		연 3.50%	연 3.85%

※ 분할지급퇴직급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및 회원의 개별과세율(0~3.62%, 퇴직급여 과세율과 동일)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은행세전금리 환산시 최대 4.55% 수준)

■ 부가율 조정일 : 2022년 11월 1일

현재 가입 중인 회원은 2022년 10월 31일까지는 현행 부가율을 적용받으며, 부가율 조정일(2022년 11월 1일)부터는 조정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한아름목돈담보대여 이자율 : 연 4.80%

(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 만기지급식 1년 기준)

■ 상담전화 ☎ 1577-7590